



# “한번도 안해본 낯선 배역 ‘나쁜여자’ 기대하세요”

영화 ‘여교사’ 비정규직 교사 효주 역 김하늘  
어두운 감정의 민낯 잘 표현... ‘인생연기’ 주목

영화 ‘여교사’는 배우 김하늘(40)에게 일종의 모험이자 도전이었다. 올해로 연기 경력 20년째인 중견 배우지만,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배역이었기 때문이다.

김하늘은 그동안 각종 작품에서 남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밝고 청순한 여주인공을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여교사’ 속 효주는 완전히 다르다. 비정규직 교사인 효주는 10년 사근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하루하루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아간다. 그나마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정교사 자리를 모든 것을 다 가진 후배 여교사(유인영)에게 빼앗긴 뒤에는 질투에 사로잡혀 ‘나쁜 여자’로 돌변한다. 영화 속에서 김하늘은 시종일관 표정이 어둡고, 감정에는 날이 서 있다.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기분은 너무 나빠져 곧바로 덮었어. 효주가 처한 상황이 너무 갑갑하고, 그가 느꼈을 모멸감 등이 그대로 전해져 도저히 제가 연기할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효주를 놓치면 오히려 더 많은 미련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영화 ‘여교사’가 개봉한 4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하늘은 이 작품을 선택하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저는 극 중에서 예쁘고 사랑스럽고,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역할만 주로 했죠. 한데, 이 영화에서는 ‘당신은 악마 같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와 같은 말을 듣는 역할이예요. 그런 대사를 들으니까 실제로 모욕감이 들더라고요.”

김하늘은 “더 어렸을 때 이 작품이 들어왔다면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다”면서 “연기 경력이 쌓이고 연기폭도 넓어지면서 제가 표현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자신감이 생겨 도전했다”고 말했다.

김태용 감독의 ‘여교사’는 고등학교를 무대로 두 여교사가 겪는 갈등을 통해 인간의 질투, 모멸감과 같은 감정

이 어떤 과묵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화다. 김하늘은 질투, 열등감과 같은 감정의 민낯을 섬세하게 표현해 내 ‘인생 연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극중 고교생 제자(이원근)와 베드신 연기도 펼쳤다. 단, 노출은 거의 없는 편이다. 베드신에서도 김하늘의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잡는 식이다. 효주의 감정 전달을 강조하기 위해 김하늘이 건의해 노출 수위를 조절했다고 한다.

김하늘은 지난해 3월 한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했다. ‘여교사’ 촬영 당시(2014년) 김하늘은 지금의 배우자와 한창 열애 중이었다.

“저는 촬영을 하면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는 편이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지 않은 순간에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여교사’를 찍을 때 다행히 제가 사랑받고 있던 시기여서 감정의 균형이 맞았던 것 같아요.”

1996년 모델로 데뷔한 김하늘은 1998년 영화 ‘바이존’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드라마 ‘피아노’(2001), ‘로망스’(2002), ‘신사의 품격’(2012) 등에 출연했고 최근 막을 내린 ‘공항 가는 길’(2016)로 큰 사랑을 받았다. 영화에서도 ‘블라인드’(2011), ‘나를 잊지 말아요’(2016) 등으로 꾸준히 연기 보폭을 넓혀왔다. 특히 영화 ‘동감내기 과외하기’(2003)를 비롯해 드라마 ‘로망스’, ‘신사의 품격’ 등에서 선생님 역할을 주로 맡아 ‘국민 여교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그동안 여러 영화에 출연했는데, ‘여교사’만큼 제가 주목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기분이 좋죠. 연기 변신을 목표로 한 적은 없지만, 스크린에서 저 역시 제가 몰랐던 낯선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연합뉴스



# “45~55세 놀이터 만들겠다”

박중훈, 27년만에 DJ 킥백...9일 첫 방송

“라디오 진행이 27년 만이에요. 세월 참 빠르네요.” 배우 박중훈(51)이 오는 9일부터 매일 오후 6시5분 방송되는 KBS해피FM(106.1MHz) ‘박중훈의 라디오스타’를 통해 청취자들을 만난다. 그가 라디오 DJ를 맡는 것은 1990년 KBS골FM(89.1MHz) ‘박중훈의 인기가요’ 이후 27년 만이다.

박중훈은 “내가 라디오 DJ를 언제 했었던가 따져보니 세월이 엄청 흘렀더라”며 깔깔 웃었다.

그는 1987년 KBS 제2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이어 1990년 ‘박중훈의 인기가요’를 각각 1년씩 진행했다. 둘 다 라디오의 황금 시간대엔 밤 10시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그가 지천명이 넘어 다시 DJ 석에 앉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제목 ‘라디오스타’는 박중훈이 지난 2006년 출연해 히트한 동명 영화 ‘라디오스타’의 제목에서 따왔다.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고 안성기와 박중훈이 호흡을 맞춘 이 영화는 ‘왕년의 스타’의 오늘을 조명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줬다.

박중훈은 “2017년 대한민국의 45~55세대가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하루의 마무리만으로도 빠듯한 퇴근 시간에 즐거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오십이 넘어 다시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최근 혼자서 시나리오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라디오 제안이 와서 흔쾌히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중훈의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대부분 후부터 30여 년 동안 영화계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박중훈의 이번 도전은 영화 ‘라디오스타’의 영향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중훈의 공인된 입담과 특유의 유쾌한 느낌으로 진행될 ‘라디오스타’는 친숙한 팝 음악과 다양한 코너, 청취자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퇴근길의 즐거움과 소소한 위로를 건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중훈의 라디오스타’ 첫 초대손님으로는 배우 김수호가 11일에 출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이 쓰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학특선 천상의 컬렉션(재)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다시, 첫사랑) (재)	00 불어라 미용아 (재)	00 안면 자두야 30 고행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슈퍼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05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55 별별가족(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비디오 여행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신년기획 우리말 겨루기 0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05 신년기획 디렉터스컷 히말라야 사람들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스페셜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신년기획 베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KBS 신년기획 2017 대한민국 길을 묻다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40 KBS 뉴스 50 신년기획 디렉터스컷 히말라야 사람들	10 해피 투게더	10 닥터고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영상앨범 산	15 MBC 뉴스 24 4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1월 5일 (음 12월 8일 壬辰)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5:05 두키탐험대
05:30 통일 미리보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20 꼬마기사 마이크
06:00 한국기행(재)	(해시브라운과 리코타 치즈 샐러드)	15:35 오솔상자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코코코 다코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두디다롱
07:30 뽀뽀뽀뽀 뽀로로	12:10 장수의 비밀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07:45 꼬마버스 타요	12:40 역사채널e	16:45 똥똥똥 뽀로로(재)
08:00 똥똥똥 유치원 1~2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7:00 뽀뽀똥 뽀로로(재)
08:30 울강한 소방차 레이	13:40 스쿨랜드-한치왕국	17:45 꼬마버스 타요(재)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13:50 그림을 그려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00 주사위 오정 큐비주	13:55 출동! 슈퍼워즈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09:15 시계마을 타기톡!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30 EBS 뉴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55 모피와 친구들	19:5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09:40 부모-위대한 엄마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알로해 하얏지 4부		<북맞이 기행 4부
비밀의 정원을 가다, 카우아이)		금방아와 북대구)
		21:50 동물과 인간의 한판 승부
		<우리가 몰랐던 동물의 능력>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올디브 사위의
		차가실이 완전 청복기2>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5일 (음 12월 8일 壬辰)
<b>子</b> 48년생 노파심을 버리고 편하게 지내다. 60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72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84년생 사회적 통념에 비취보자. 행운의 숫자 : 89, 24	<b>午</b> 42년생 성공의 길은 함들고 함들다는 것을 알자. 54년생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간다. 66년생 범의 등을 타는 기세로 정진하게 된다. 78년생 치우친 주관을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90년생 집다함을 정리하라. 행운의 숫자 : 45, 60
<b>丑</b> 49년생 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61년생 절제하라. 73년생 어중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될 수이다. 85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 펴 풀어야이다. 행운의 숫자 : 09, 51	<b>未</b> 43년생 대중 남김 일이 아니다. 55년생 최선이다. 67년생 구상은 좋으나 추진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다. 79년생 아무런 이상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91년생 취약점을 보완해 두지 않으면 연쇄적인 봉해를 면할 길이 없다. 행운의 숫자 : 39, 17
<b>寅</b> 50년생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 62년생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4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86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다를 잡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67, 96	<b>申</b> 44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과대비 지 말라. 56년생 필연적인 형국이니만큼 각오하고 임하라. 68년생 유사하게 반복될 것이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리라. 80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55, 25
<b>卯</b> 51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63년생 일의 행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성취이라 할 것이다. 75년생 그대로 뒤져야 번복한다면 손재수를 부를 뿐이다. 87년생 끝이 싱거울 수도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12, 41	<b>酉</b> 45년생 상대의 말에 숨은 뜻까지 잘 파악해야만 하느니라. 57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판세에서 애매하리라. 69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81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8, 76
<b>辰</b> 52년생 관점의 한계가 파격적인 기회의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 64년생 중차대한 판국의 마당이니 빈틈이 없어야겠다. 76년생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임해야 속이 편할 것이다. 88년생 골라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88, 01	<b>戌</b> 46년생 투명하게 추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58년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70년생 유동적이니 때사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참으로 힘들더라도 중도에서 그만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82, 64
<b>巳</b> 53년생 현재의 시점에서 빈틈을 보인다면 치명적이라. 65년생 모순점이 보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77년생 일시적인 정세 현상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키 어렵겠다. 89년생 자제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4, 61	<b>亥</b> 47년생 너무 깊이 개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상대도 모두 인식하고 있느니라. 71년생 흥한 것은 많고 길한 것은 적어 보인다. 83년생 유능한 이들과 함께 걸사를 도모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2, 5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